

기본소득이라는 돈의 사회적 의미와 감각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연, 김지현, 이지은, 조민서, 홍은경(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유영성(경기연구원)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낮선 돈의 출현

5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과 의미부여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7

결론

1 서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총 4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혹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는 경우 대상

- **청년기본소득의 출현**

- 한국사회에는 낯선 명칭/사고,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쏟아지는 지대한 관심
- “**기본소득(배당)**”이라는 아이디어, 동시에 노동가능인구로 여겨져 왔던 ‘**청년**’에게 주어지는 돈

1 서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의미**

- 담론적 차원에서 한국 기본소득 논의의 포문을 여는 것에 영향을 미쳤음
- 하지만 실질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 설문조사 제외 본격적으로 논의 되지 않음

- **기본소득(이하 BI)의 이념형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하 YBI)**

- YBI는 BI의 개별성/무조건성만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
- : 그럼에도 노동연계복지를 지향했던 기존 정책들과 구별되는 특성 존재
- 따라서, 이념형적 BI에 수렴하지 않아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경험의 새로움에 주목
- : ‘노동’을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 돈, 빈부와 상관없이 주는 돈



1 서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목적

청년기본소득



0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1 서론

●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의미?

새로운 경기 > 긍정적인 세상

축 24세! 축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하니까~
청년에겐 힘을 주면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우리 동네에서 사용되니까~
우리 동네 사장님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청년도 UP! 사장님도 UP!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 상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진아바)
제출서류 : 1.신청서 2.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신청기간 : 2019년 4월 29일~4월 30일
지급개시 : 2019년 4월 20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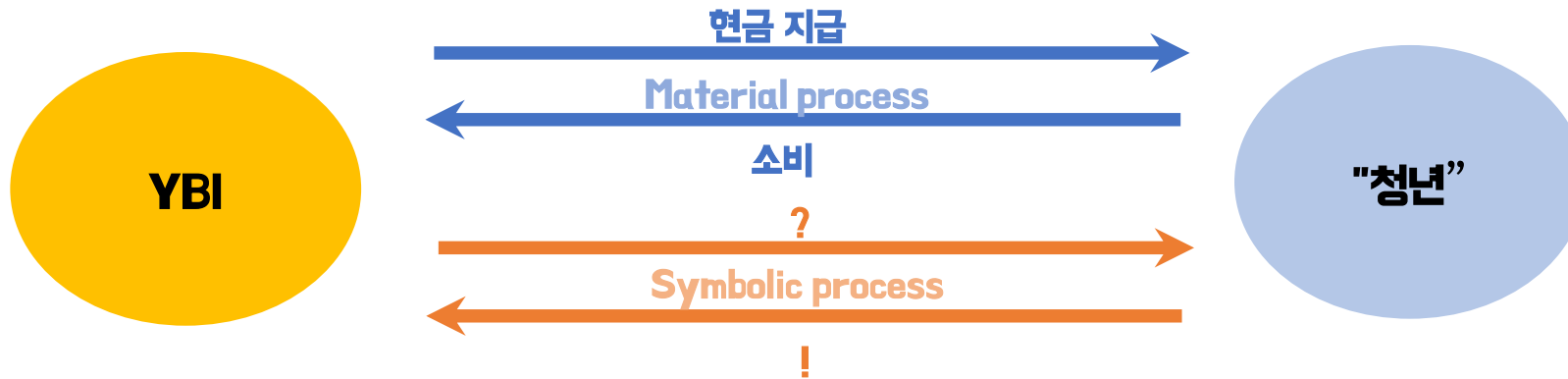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진아바(jappy.jobaba.net)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먹 먹 먹
#경기청년 #만24세 #연간100만원

1) “축 24세!” 청년들에게는 생일선물

2) 청년에게는 힘을,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1 서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청년의 상호작용은 물질적인 동시에 상징적

▶▶ 1) “기본소득”이라는 라벨을 단 이 ‘돈’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같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도출하려 시도하지 않음 (cf: 서정희 2019)

- 다만 “기본소득” 이라 불리는 새로운 성격의 ‘돈’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열린 방식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연구

▶▶ 2) 이 돈의 경험은 이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2 이론적 배경

- **돈의 사회적 의미(Zelizer, 1997. *Social meaning of money*)**

- 무색무취의 '수치'로서 존재하는 일반명사 '돈(Money)' -> 각기 의미로 장전 되어있는 '돈들(Monies)'

- 돈의 출처, 주어지는 과정(절차, 의례, 말)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의미

- ex) 일을 해서 번 첫번째 돈,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 장학금, 상금, 대출금, 유산 - "아까운 돈" "공돈" "소중한 돈", "더러운 돈 "

- 국가로부터 청년에게 주어지는 '돈'들의 등장, 그 중에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 학자금 대출(백진영 2014; 천주희 2015), "꿈", "프로젝트" 등의 말을 수반하는 각종 지원금(조문영 2018), 구직지원금, 청년수당(조민서 2019), 그리고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2 이론적 배경

● 국가의 현금 지급과 시민권

-국가가 지급한 현금은 개인에 의해 사용되면서 “국가 형성의 일상적인 형태(Everyday form of state formation)”를 구성함(Alonso, 1994)

ex 1) EITC의 경우

-중산층 생활을 일시적으로나마 가능케 하는 돈 -> 자부심과 ‘시민됨’의 경험 (Sykes et al, 2015)

ex 2) 청년수당의 경우

-시간=화폐의 증가, 미래지평의 변화, 희미하게 움트는 ‘사회’의 감각(조민서&김홍중, 2017)

3 연구방법

● 분석대상 및 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회 이상 수급 경험자 6명, 2회 개별 인터뷰

● 인터뷰 일시

- 1차(9월 말~10월 중순), 2차(10월 말~11월 초)

● 표집 구성

구분	이름	지역	성별	직업	표집방법
A	진규	수원	남	취업준비생	지인 소개
B	승환	용인	남	사회복지사	지인 소개
C	윤지	수원	여	아르바이트 노동자	지인 소개
D	하은	시흥	여	어린이집 교사	지인 소개
E	재훈	성남	남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업체
F	연아	성남	여	간호사	조사업체

3 연구방법

- 포토보이스(photo voice)를 포함한 인터뷰 진행

- 질문내용

- 1) 돈의 쓰임새
-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 3)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 낯선 돈의 출현과 자신의 정의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 진행

4 낫선 돈의 '출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어디서 처음 들었는가?**

- 친구 / 동사무소에서 전화 / 우편물 / 페이스북 / 버스광고 / 성남시 경험(미리 알고 신청준비)

- **별다른 감각 없이 신청 혹은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그냥 신청**

“그 때 당시에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건가 보다” (재훈)

“나라에서 1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받고 쓰는 거 보니까 뭔가, 별다른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신청했어요” (하은)

4 낫선 돈의 ‘출현’

● 청년기본소득이 부과하는 물음표

1) 왜 청년에게 주는가? : 노동가능인구인 나에게?

“예전에는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한테 와서 왜 이런 걸 하지?” (연아)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그런 게 남득이 되잖아요. 저희 나이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면 알바라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실 복지라는 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 이미 취업성공 때키지라고 있잖아요.” (진규)

2) 국가가 왜 줄까? :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

“시흥 시장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계속 말씀하셔서, 뭐가 짹짹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른의 말이니까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분기에는 신청은) 안 했어요.” (하은)

5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과 의미부여



● “공돈”이라는 이름의 윤택함

“아무래도 제 돈에서 나가는 느낌보다 공짜로 생긴 돈에서 나가는 느낌” (연아), “더치데이” 조차 하지 않음(윤지), “노력을 해서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돈은 조금 더 헤프게 쓴다고 해야 될까” (진규)

1) 여유 : 미용실, 덧신, 스킨로션, 안경, 꽃집, 책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 선에서 책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있고 나서 책을 살 때 고민을 안 하고 사다 보니 (...) 좀 더 나한테 많은 투자를 좀 더 고민을 안 하고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아끼고 이게 제일 저한테 의미 있었어요” (진규)

“그 다음 결제가 안경. 눈이 애매하게 안 좋아서 맞춘가 말까 하다가 안경을 맞추게 된 게 이거고요. 이때 되게 좋았던 것은 제 돈으로 샀으면 블루스크린 차단 안 했을 것 같은데 UV차단, 블루스크린 차단 이런 것도 다 하게 된 거예요.” (윤지)

5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과 의미부여



2)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 : 가보지 않았던 장소 방문, 해보지 않았던 취미 시작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맛집을 검색해서 하는 게 내 돈이 아까우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잘 써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 동네에. 여기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재미있는 거예요. 공짜이니까. 여기를 실패해도 괜찮아요” (윤지)

“전부터 (낚시에 대해) 흥미는 있었었는데 이거 받고 (...) 낚시대를 산 거죠. 그냥 전에 없었다면 싹 걸 사서 배워보자.” (재훈)

3) 사회성 : 가족 친구들과 잦아진 회합

“아빠랑 장보러 마트에 가서, 다 담으라고, 그런데 10만원 넘게 나와서. 아빠가 소고기 사도 되냐고, 그래서 사라고. (...) 이렇게라도 사줄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 (하은)

“저는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 다들 청년 기본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화도 생기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윤지)

5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과 의미부여

- **제 3의 돈 : 규율/해이, 구직활동지원금/유형의 이분법을 넘어**

- 1) 지원금의 ‘목적’ 의식하기 보다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돈**

“기본권 보장” (승환) “행복해지라고 한건가?” (윤지) “자신의 욕구 충족 “(진규)

- 2) 그렇다고 ‘탕진’ 하고 싶지는 않은 돈**

“(정책의) 목적에 맞게 쓰고 싶어요” (진규) “생산성 있게 써야할 것 같아요” (윤지)

“의미 있게(활용성 있게) 쓰고 싶어요. 나를 위한 투자” (재훈)

- ▶ **‘최저선’ 과 ‘행복’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협상하는 과정**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험은 기본소득의 경험이었는가?

1) ‘지역화폐’라는 지급방식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하도 서울이나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니니까, 지역 안에서 좀 쓰라고” (하은)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좋겠지만, 현금으로 주면 그냥 진짜 돈을 뿌리는 거 밖에는 (...) 복지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주면 북한이랑 다른 바가 없잖아요” (진규)

▶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공짜로 뿌리는 돈’이라는 인식을 희석시키며 현금 지급의 정당성 확보

▶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조건부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제약에 대한 성찰 필요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2) '청년'이라는 사회적 약자

“주위에 사람도, 자원도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윤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진규)

“독립해야 하지만 독립하기 어려운 과도기” (연아), “사회초년생” (승환)

☞ 청년이 '사회적 약자' 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고 해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특정 세대 혹은 연령 집단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인식하며 자원 경쟁을 느끼기도 함

“청년들 외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연아)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낸 세금이 왜 노인이나 아동 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하는지

불만을 많이 느낄 거예요” (진규)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3) '청년(축 24세)' 기본소득이라는 일회성 선물?

“나라에서 나한테 이런 신기루 같았고 좋았다. (...) 안 써본 걸 써보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런 단기간의 경험. 왜냐하면 그게 지속되지 못하면 어쨌든 나의 삶이 아니니까.” (윤지)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4)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에 대한 거리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라는 지금 대상과 ‘**지역화폐**’라는 지금 형태에 비추어 해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낌

✓ **높은 정책 만족도, 그러나 원칙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 수준**

“기초수급 같은 경우는 제 근로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데, 청년배당은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이 부유하다면, 일 안 하고 부모님한테 돈 타 쓰고 청년배당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쓰지 않을까” (재훈)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4)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에 대한 거리감

✓ 기본소득의 전면적 도입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데, 노동성도 취급 안 하고 나이랑 계층 취급 안 하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니까 그 나라는 복지 정책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돈이 있는 건가. 뭔가 부족한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텐데 업무 동기를 어떤 걸로 받아서 그 사회가 유지 되고 있는 걸까 나라가 괜찮을까? 세금을 더 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전 세대에 주는 건지가 궁금해요.” (하은)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음
- ▶ 대부분 공적현금지급 방식(서비스)과 보편적 복지(재원마련 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하기도 함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 사회에 대한 감각

1) 무조건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 :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비교1
기초생활수급

“발판” “기초수급비는 진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준다고 치면 청년배당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채움으로 제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액수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런 복지정책이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한.” (재훈)

비교2
취업성공패키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성공패키지라는(…). 그 프로그램하면 스트레스 (…).매달 이 돈을 구직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그걸 증빙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윤지)

비교3
경기도구직지원금

“그런데 그거 하면서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소득에 잡히면 안 되니까. 거의 자린고비였어요. 동생은 알바를 못하니까. 진짜 자린고비하고 있어요.” (연아)

6 청년기본소득이 남긴 것

● 사회에 대한 감각

2) 사회로부터 무언가를 보장받은 경험

✓ 예산 낭비라고 느껴지는 도로공사가 아닌 직접 와 닿는 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용돈 같아요 진짜. 보너스 같은 돈이라고 할까?” (엄한 사업 같은 데 쓰이는게 아니라) 도로 부시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아)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받고 있으니깐 지금 당장 와 닿는 그게 보편적 복지 스타트인 것 같아요” (승환)

“저도 아무튼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노인이나 유아 같은 상황이죠. 제가 낸 돈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낸 돈으로 제가 혜택을 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나 노인 분들이나 똑같이 때문에 이해하는. 저도 똑같은 처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감이 되고요.” (진규)

7 결론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내세우는 철학과 정책의 목적성이 개인의 일상 속에서 변주되고 감각되는 경험
- ▶ 낯선 돈에 대한 물음표의 발생과 나름의 해소과정, 그 궤적이 남긴 것들을 관찰하고자 함

● 연구의 한계와 전망

- ▶ 현재 시행 중(3분기 까지 진행) & 적은 사례 수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념형 기본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까지 전무했던 ‘사회’ ‘권리’ ‘국민’ ‘행복’ 과 같은 언어들로 포착할 수 있는 모종의 씨앗을 받아들였음

Q & A